

- 주요 뉴스: BOJ의 6월 통화정책회의, 양적완화 축소 계획 부족으로 시장은 다소 실망
 - 프랑스 조기총선 정국 불안으로 프랑스-독일 국채금리 스프레드 5개월래 최대
 -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
 - G7 정상, 러시아에 우호적인 무역 관행을 행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일 계획
 - 국제금융시장: 보호무역주의 강화, 프랑스 정국 불안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 증가
 주가 약보합[-0.04%], 달러화 강세[+0.3%], 금리 하락[-2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약보합. 나스닥은 5일 연속 최고치
 유로 Stoxx600지수는 프랑스 조기총선 정국 혼란 증가 등으로 하락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글로벌 무역 갈등 고조, 중국 제재 강화 등으로 상승
 유로화 가치는 0.32% 하락, 엔화 가치는 0.24% 하락
 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내 1회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하락
 독일 10년물 국채금리는 프랑스 정국 혼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하락
- ※ 뉴욕 1M NDF 증가 1,380.95원(스왑포인트 감안 시 1,383.30원, 0.3% 상승), 한국 CDS 상승

		6/14일	6/13일	전일대비			6/14일	6/13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5,431.6	5,433.7	-0.04%	국채 금리 10y	미국	4.22%	4.24%	-2bp
	유럽	511.05	516.04	-0.97%		독일	2.36%	2.47%	-11bp
	중국	3,032.6	3,028.9	+0.12%		영국	4.06%	4.12%	-6bp
	일본	38,815	38,720	+0.24%	CDS 5y	한국	36bp	35bp	+1bp
	한국	2,758.4	2,754.9	+0.13%		중국	68bp	65bp	+3bp
환율	달러지수	105.55	105.20	+0.34%	위험 지표	EMBI+	385bp	383bp	+2bp
	유로화	1.0703	1.0737	-0.32%		VIX	12.66	11.94	+6.03%
	엔화	157.4	157.03	-0.24%	원자재	WTI유	78.45	78.62	-0.22%
	위안화	7.2557	7.2525	-0.04%		구리	449.5	448.2	+0.30%
	원화	1,379.3	1,373.9	-0.39%		금	2,333.0	2,304.2	+1.25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BOJ의 6월 통화정책회의, 양적완화 축소 계획 부족으로 시장은 다소 실망

- 정책금리 동결(0.0~0.1%) 결정. 7월까지의 월간 6조엔 규모인 국채매입 속도를 유지할 것이며, 7월 회의에서 구체적인 장기국채 매입 축소를 발표할 예정
- HSBC는 구체적인 국채매입 감액 규모 및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BOJ가 “통화정책 정상화를 서두를 의지가 없다”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고 평가
- ANZ는 BOJ가 엔화 약세를 피하고자 했다면 이번 통화정책 결정은 도움되지 않았으며 양적긴축 관련된 내용 부족이 다소 실망스러웠다고 평가
- BOJ가 국채매입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하더라도 자산매입을 중단하거나 자산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양적긴축 방안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음(Financial Times)
- Goldman Sachs는 BOJ가 월간 국채매입 규모를 6조엔에서 5조엔으로 점진적으로 줄일 것으로 예상. 그 동안 초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BOJ의 국채보유액은 '13년 3월말 91조엔에서 '24년 5월말 현재 593조엔으로 증가한 상태
- 우에다 총재, 최근 엔화 약세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환율이 정책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”고 발언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미국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지수, 전월대비 악화

- 미시건대 6월 소비자심리지수 예비치, 65.6로 전월(69.1) 대비 소폭 둔화되어 7개월 래 최저. 기대 인플레이션은 3.3%로 전월대비 동일. 소비자들은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 약화를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. 다만 설문조사 기간 (5.22일~6.12일) 당시 5월 CPI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의

■ 프랑스 정국 불안으로 프랑스-독일 국채금리 스프레드 5개월래 최대

-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파가 약진한 여파로 프랑스와 독일의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가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. 안전자산 선호로 유로존 국채시장의 기준인 독일의 수익률이 큰 폭 하락한 영향. 프랑스 전역서 반극우 시위 확산

■ 미국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,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

- 로레타 메스터 총재, 올해 1번의 금리인하를 예상한 연준의 점도표가 자신의 경제 전망과 일치하며, 5월 CPI 둔화세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물가지표 둔화 추이가 몇 번 더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발언

■ 유로존, 수출 호조로 4월 무역수지 150억 유로 흑자

- 유로존 4월 무역수지 예비치는 150억 유로 흑자를 기록, 이는 작년 4월 111억 유로 적자를 낸 것과 대조적 양상. 이번 무역수지 흑자는 4월 수출이 2,476억 유로로 전년동월대비 14.0% 증가한 영향

■ 인도, 수입 증가로 5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

- 인도의 5월 무역수지 적자액은 238억달러로, 시장의 예상(195억달러)을 하회. 금년 3월말 끝나는 회계연도에 8% 성장한 인도는 내수 시장 호조에 힘입어 수입이 확대. 5월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7.7% 증가하고 수출은 9.1% 증가

■ G7 정상, 러시아에 우호적인 무역 관행을 행하는 중국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일 계획

- G7 성명서에서는 러시아의 국방 산업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는 중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중국에 모든 무기 부품 및 장비 등의 러시아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. 한편, EU는 7.4일부터 중국 전기차에 최대 38.1%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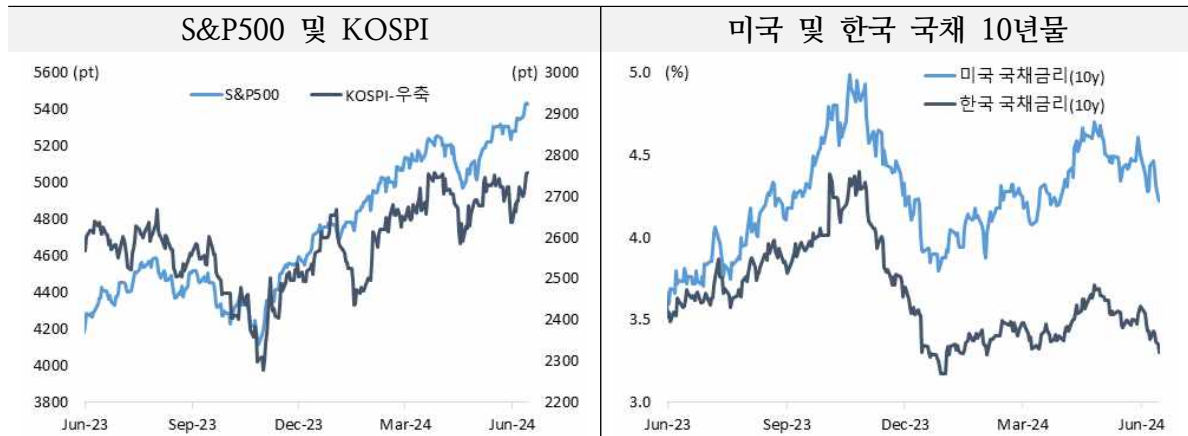
■ 러시아 모스크바 거래소,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달러·유로 거래 중단

- 6.12일(수요일) 미국 정부가 대러시아 추가 금융제재로 모스크바 거래소와 국립예탁결제소 등 러시아 금융기관을 포함시키면서 달러화와 유로화 거래가 중단되고 루블 환율에 대해 이제 은행 간 거래가 반영. 모든 달러 및 유로 거래가 은행 간 시장으로 전환되면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 간의 스프레드가 더 넓어지고 루블 변동성이 더 커질 가능성

주요 경제지표 발표

- 미국 6월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: 65.6, 전월(69.1), 예상(72.0)
- 미국 5월 수입물가지수(mom): -0.4%, 전월(0.9%), 예상(-0.1%)
- 미국 5월 수출물가지수(mom): -0.6%, 전월(0.5%), 예상(0.1%)
- 중국 5월 M2 증가율(yoy): 7.0%, 전월(7.2%), 예상(7.1%)
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5, E-mail kimhj@kcif.or.kr